

Afterwards

PART 1: A STORY FROM ISRAEL
2012. 3. 6 > 4. 1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65-16

465-16 PYUNGCHANG-DONG
JONGNO-GU SEOUL
110-848 KOREA

T. 02 379 7037
F. 02 379 0252

www.totalmuseum.org

1. 전시개요:

제목: 한-이스라엘 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전시 <Afterwards (part1. a story from Israel)>
일시: 2012년 3월 6일(화)~4월 1일(일)
장소: 토탈미술관 전관
기획: 토탈미술관, I-MYU Projects
후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참여작가: 자료별첨
초청일시: 2012년 3월 6일(화) 오후 5시

2. 특별강연:

일시: 3월7일(수) 오후 3시
장소: 토탈미술관 강연실
내용: 이스라엘의 현대미술현장
발표자: 하기트 페레그 로템 Hagit Peleg Rotem (큐레이터/저널리스트)

3. 기획의도:

왜 Afterwards, 인가.

"미술은 문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브루스 나우만은 말했다. 브루스 나우만의 이 말은 현대미술에 던지는 의미는 크다. 현대미술은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나 멋진 조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로 하여금 지금껏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늘날과 같이 전 지구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미술이 가지는 중요성은 점점 더 커져간다고 할 수 있다. 시시각각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 전쟁,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작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그 후에' 라는 뜻을 가진 'afterwards'라는 전시제목은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되었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난 '그 후에' 어떻게 세상을 이야기하는가. 본 전시는 이스라엘 비디오아트를 통해서 그들이 바라본 오늘날의 세상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다국간의 교류가 아닌, 특정국가와의 밀도 있는 교류전

본 전시는 다양한 국가의 작가들을 초청한 기획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의 교류전시이다. 다양한 국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 국가적 배경과 상황, 혹은 작가들에 대해서 밀도있게 연구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전시에서는 이스라엘 출신의 작가들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 그 안에서 좀 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작가들을 소개하는데 집중하였다. 그렇다고 지리적이거나 물리적인 조건이 작품의 성향을 결정짓는다는 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전시를 풀어가고자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환경 안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생각과 표현방식을 담고자 하였다. 게다가 이번 전시가 끝나고 내년에는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작가들과 함께 하는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에, 단발적인 교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교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4. 참여작가:

벤 아가리 Ben Hagari / 1981년 텔 아비브(Tel Aviv)출생

시갈리트 란다우 Sigalit Landau / 1969년 예루살렘(Jerusalem)출생

시갈리트 란다우는 조각가이자, 비디오아티스트, 설치예술가이다.

2008년 뉴욕현대미술관 MoMA에서 <프로젝트87:시갈리트 란다우>전시를 가졌으며,

1997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쳐 베니스 비엔날레 이스라엘 파빌리온에 초대되었다.

다나 레비 Dana Levy / 텔 아비브 출생

샤할 마르쿠스 Shahar Marcus / 1971년생

www.shaharmarcus.com

샤할 마르쿠스는 비디오와 퍼포먼스, 조각 등의 장르를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런던 테이트 모던 갤러리를 포함하여 세계 곳곳의 우수 미술관들에서 전시회를 가졌으며, 모스크바 비엔날레 등의 비엔날레에도 참여하였다.

우리 니르 Uri Nir / 1976년 텔 아비브 출생

니라 페레그 Nira Pereg / 1969년 텔 아비브 출생

<http://nirapereg.net>

미리 세갈 Miri Segal / 1965년 하이파(Haifa) 출생

샤하프 아론 Shachaf Yaro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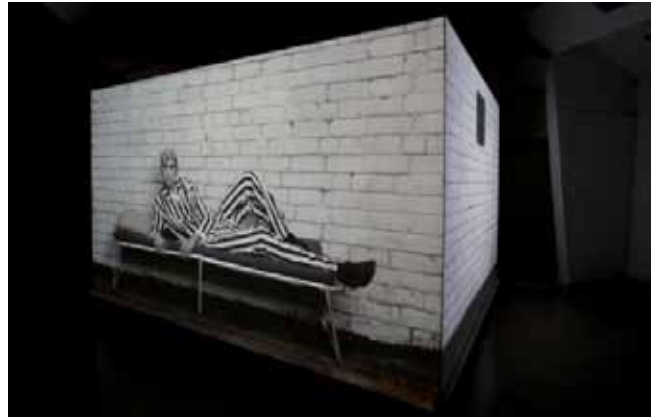
<http://cargocollective.com/shachafyaron>

타미르 자독 Tamir Zadok / 1979년 홀론(Holon) 출생

5. 주요 참여작품

〈우리에게 자유를 A Nous la Liberté (Freedom for Us)〉, 벤 아가리,
300×260×200 cm 외벽 및 내부(5면) 프로젝션 설치, 2011

벤 아가리의 〈우리들의 자유〉는 사각의 큐브 안과 밖에 동시에 영상이 투여되는 설치작품이다. 큐브의 외벽4면에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투사된다. 검정색과 흰색의 줄무늬 죄수복을 입은 죄수는 눈을 감고 있는데, 실상 그의 눈꺼풀 위에는 또 다른 눈이 그려져 있으며, 각 벽면에는 정지 이미지들로 구성된 비디오 시퀀스들이 상영된다. 큐브의 안쪽에는 창살이 드리워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손으로 식물과 동물의 모양을 만드는 그림자 놀이를 하는 나이든 노인의 실루엣이 보인다. 그림자예술가 알베르트 알모즈니노(Albert Almoznino)가 특별히 이 작품을 위해서 특별 출연하였다.



〈데드씨 DeadSee〉, 시갈리트 란다우, 비디오 11:39 min., 2005

500개의 수박이 연결된 250미터 길이의 긴 수박의 끈을 6미터 지름의 원형의 나선으로 감아 이스라엘의 짙은 소금 바다인 사해 (Dead Sea)에 띄운다. 그 소용돌이 형태는 감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 풀려나가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나 자신은 그 나선 원형이 이루는 층의 하나에, 중심과 가장자리 사이 안쪽에 마치 갇혀 있는 듯이 위치해 있다. 나는 그 수박의 끈이 돌아가는 방향에 대항하는 형태로, 찌르는 듯한 소금의 날카로움에 부서져 빨갭게 드러난 수박 - 마치 나 자신처럼, 애 맞닿아 있다. 사해의 소금은 모든 것을 띄운다. 그 소용돌이는 점차 그 원형의 프레임을 해체해가며 얇은 녹색 선이 되어간다. "DeadSee" 텔아비브 미술관의 헬레나 루빈스타인 관에서 2005년 1-5월 기간 중 전시되었던 "Endless solution" 전의 일부로 처음 보여졌었다. 영상은 2004년 8월에 남부 마사다 (Masada)의 소돔



〈철수 Disengagement〉, 다나 레비, 비디오 3:00 min., 2005

다나 레비의 〈철수〉는 2005년 8월 가자 지구(Gaza)로부터 이스라엘이 철수했던 기간에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특히 땅에 뿌리를 두려하는 인간의 욕구와 살던 곳에서 쫓겨 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다. 나무 집들이 서서히 나타났다가 사라지면서, 그것의 일시성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디지털 제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데, 작품이 만들어질 당시 작가는 오스트리아의 외곽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호텔 퍼픽(Hotel Pupik)에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로 머물러 있었다.



Afterwards

PART 1: A STORY FROM ISRAEL

〈프리즈 Freeze〉, 사할 마르쿠스, 비디오, 사운드, 00:04:33, 2008

사할 마르쿠스의 〈프리즈〉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얼음으로 만들어진 커다란 체스 판 위에서 체스 경기를 펼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아내리는 얼음과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커다란 모래시계에 의해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알 수 있다. 플레이어가 체스 말을 움직일 때마다 스티로폼으로 채워진 모래시계가 돌아가는데, 그 모래시계 안에는 작가인 마르쿠스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 처럼 서 있다. 모래시계의 회전, 녹아 내리는 체스 말, 그리고 회색과 검정색이 교차 되는 판은 이 비디오 작업이 촬영된 장소인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사해문서보관소 (the Shrine of the Book) 앞에 설치되었다. 이 건물에는 사해두루마리(구약성서 사해 스크롤 본), 특히 잘 알려진 전투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포함하고 있는 본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밤과 낮이 서로 자리를 내어 주는 신화의 바닷인 빛의 아들과 어둠의 아들이 겨루는 종말의 장면을 기술하고 있다.



〈가속장치 Accelerator〉, 우리 니르, 비디오, 사운드, 00:03:51, 2011

우리 니르의 〈가속장치〉는 전시 오픈닝 및 주전 미술관 안에서 촬영되었다. 촬영 장소는 미술관 두 층에서 이루어 졌다: 윗층 (헬레나 루빈스타인 파빌리온)과 실제 이벤트가 있던 지하. 어린아이 (작가의 아들)가 천정에 원형으로 매달려 있는 석판의 앞부분에서 흘러내려오는 얇은 모래 줄기에 둘러싸여 있다. 그 모래 줄기는 마치 새장같은 구조로 떨어지며 어린아이를 둘러싼다. 두 층 사이 천정/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어 그 사이로 그 가상의 모래 철장이 떨어져 바닥에 쌓이고, 그 윗층으로부터 그 모래 흐름이 바닥에 쌓여가는 장면이 촬영된다. 그 장면은 번개처럼 번쩍이는 라이팅 효과로 촬영되었는데, 한편 천정 높이의 투명한 문들이 마치 검은 공간을 빛나는 흰 막으로 절개한듯이 세워져 그 빛을 반사하도록 설치 되었다.



〈안식일 2008 Sabbath 2008〉, 니라 페레그, 비디오(16:9), 사운드, 00:07:12, 2008

〈안식일 2008〉은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근교와 초정교회 지역에서 벌어진 폐쇄장면을 찍은 다큐멘터리 비디오 작품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일반인의 출입은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바리케이트와 같은 것들에 의해서 폐쇄되며, 약 24시간 동안 지속된다. 때문에, 이들 지역과 도시 안의 다른 지역 사이에 인공적인 경계 (border)가 만들어진다. 이 벽들은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며,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떤 차도 예루살렘의 초정교회 지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따라서 도시는 위상학적으로 두 개의 도시- 차가 있는 도시와 차가 없는 도시-로 변형된다. 이러한 의식에 입각해 본다면, 〈안식일 2008〉은 오직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한 사진적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이처럼 곧 무너질 것만 같은 벽들이 가지는 가치라는 것은 모든 상징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그러한 벽의 현존은 마찰과 갈등의 원천임에 분명하다. 그 벽들의 존재는 신성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의 아주 분명한 경계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Afterwards

PART 1: A STORY FROM ISRAEL

〈세르게이 B Sergey B〉, 미리 세갈, 풀-HD 비디오, 사운드, 2010, 00:19:12

2014년 구글 코퍼레이션은 사용자의 생각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웨어러블 컴퓨터인 'G마인드'를 런칭한다. 〈세르게이 B〉는 구글을 공동 창립자인 세르게이 B의 취임연설이다. 세르게이 B는 연설중 클리셰와 자기과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근래의 하이-테크 귀족들이 주로 쓰는 마케팅 수사학을 사용한다. 가속적으로 발전하는 테크놀로지에 기반한 G마인드는 일상생활의 순간들을 녹화, 기록할 수 있다. 즉, G마인드는 생물학적 기억을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다음 단계이다. 기억하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됨으로써, 우리의 주체는 파괴된다.



〈마리아 그로스 Maria Gross〉, 샤하프 아론, 비디오, 사운드, 2011

〈마리아 그로스〉는 샤하프 아론이 이스라엘 작가인 *아론 아펠펠드(Ahron Appelfeld, 문학과 홀로코스트 생존자에게 주는 이스라엘 수상작가)의 책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한 3부작 중 하나이다. 이 비디오3부작은 문학과 비디오 아트 사이의 다이얼로그를 만들어 보기 위한 시도였으며, 아펠펠드의 책에서처럼 그의 비극적 운명과 함께 한 가장 잔혹한 순간에 처했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주관적인 경험들을 작가의 입장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시도이기도 하다. 이 비디오 작품에는 전문적인 연극배우들이 참여했으며, 3부작을 위한 음악은 저명한 이스라엘 뮤지션인 카르니 포스텔(Karni Postel)의 원곡이 사용되었다.



〈가자 운하 Gaza Canal〉, 타미르 자독, 00:09:00, 2010,

타미르 자독의 작품 〈가자 운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운하가 건설되었다는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 프로젝트 홍보/선전 영화이다. 자독은 2002년 건설이 시작된 운하에 의해서 가자 지구가 팔레스타인/이스라엘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섬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언뜻 이 작품은 *시몬 페레스(Shimon Peres)가 이야기했던 "새로운 중동"의 비전에 입각하여 글로벌 경제 관광프로젝트를 통해서 미래의 평화모델을 제안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가자 운하〉는 "모든 아랍인들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라고 하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스라엘의 환상을 극단적으로 몰아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서와 근대화를 이유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기간의 다양한 국가프로젝트들에 대해 비판을 담고 있다.

* 시몬 페레스는 이스라엘의 9번째 대통령으로 2007년부터 대통령으로 재직중이었다.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에 공헌하여, 1994년 노벨평화상을 탔다.



작가인터뷰 링크

벤 아가리 <http://tether.org.uk/tv/archives/58>

샤하프 아론 <http://vimeo.com/37731435> (password: trailer)